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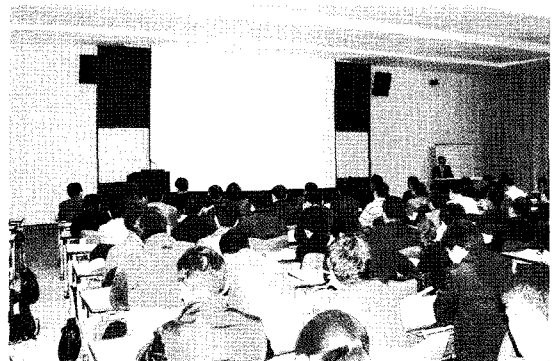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 공단 - 민간기관 합동 워크숍 열려



한경보 회장은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산재예방 민·관 합동 워크숍에 참석 2010년 업무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현안에 대한 토의 및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구준 부회장과 안태호 이사도 함께 참가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의 사무관급 이상 20명과 지방 43개 산업안전과장, 선임감독관 9명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사업부서실장을 비롯해 지역본부장, 지도위원장, 민간협회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0년 노동부 주요정책과 사업추진방향 설명 및 토의와 노동부·공단·민간기관 협력방안 논의, 정책 건의사항 및 기관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루어졌으며 제3차 산재예방5개년 계획을 비롯해 2010년 주요업무보고, 사고성 재해 절반 줄이기 운동 실시계획, 4대강 살리기 사업 안전관리대책등의 자료가 실린 산업안전보건 정책자료집의 배포도 이루어졌다.

2010년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 민간기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및 사업 활성화 방안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일자리



• 건설안전분야 재해감소 방안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안태호 이사 (사진=노동부)

창출방안, 산업안전보건문화 관련 사업 추진방안, 각종 제도 개선방안 등이 협의되었고 산재예방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관련사항으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이번 워크숍은 화합의 시간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노동부·공단·민간기관이 화합하는 좋은 자리로 마감되었다.

한경보 회장 포스코건설 안전관리자 교육 실시해



2010 포스코건설 2010 안전관리자 W/S를 마치고 재해를 0를 향한 힘찬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석자들.

한경보 회장은 지난 8월 23~24일, 30~31일 2차에 걸쳐 포스코건설 2010 안전관리자 W/S에 참석 안전관리자 역량향상 방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포스코건설 안전관리자 257명을 대상으로 충북 제천 청풍 리조트에서 있었던 포스코건설의 이번 워크숍은 '인명존중' POSCO 그룹 문화선도를 위해 안전목표를 공유하고 건설안전기술 함양을 통한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안전관리자 워크숍을 주관한 최홍길 경영지원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재해율 0.10%를 달성해 대·내외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인정받았으나 현재 포스코건설에서 목표하고 있는 글로벌 Top 21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안전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그룹차원의 Mega-Y를 적극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최후의 보루로서 "인명"을 걸고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경보 회장의 건설안전특강 이외에도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주요 응급처치법 교육과정도 진행되어



교육 참석자 전원이 과정을 수료하여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원으로 등재되는 수확을 거두어 건설현장에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워크숍 일정 동안 사랑의 헌혈행사도 병행되어 80명이 작은 나눔을 실천하였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한경보 회장의 특강에 대한 교육만족도는 92%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해 교육 효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3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및 세미나 열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7월 5일(월)부터 10일(금)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효율적 위험관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7월 첫째주에 열리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는 1968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올해 43번째 행사를 맞았다.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는 노·사 및 일반국민에게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

리고 우리사회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었으며 우리협회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효율적 위험관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최태영 전문위원과 이상철 부장이 「건설현장 사례중심의 안전관리」와 「최근 산업법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교육을 각각 실시 하였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의 주요 행사로는 ▲ 안전보건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안전보건의지를 다지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 안전보건에 관한 신기술 및 정보교류의 장인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 국내외 최신 안전보건 기기 및 제품이 선보이는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와 더불어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안전보건행사가 마련되었는데 올해는 특히,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 「안전보건 UCC SHOW」 ▲ 「안전 동요제」 ▲ 「안전문화 페스티벌」 ▲ 「사이버 문학공모전 당선작 전시」 등이 진행되었다.

7월 5일(월) 행사의 시작을 알린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노사정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참여해 안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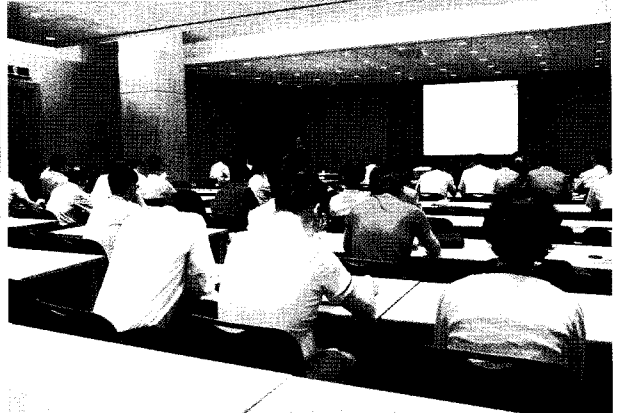


• 제43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에 참석한 박주준 부회장.

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실시되었으며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우리가 진정한 안전진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리사회 보편적 문화로 정



※ 협회주관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경보 회장



※ 사례중심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최태영 전문위원.

착되어야 한다”며, “조심조심 코리아” 슬로건 제정과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위험을 항상 생각하고, 안전앞에 늘 겸손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세미나」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4개분야 26개 주제별 안전보건에 관한 최신 정보와 기술이 발표되었는데 우리협회주관 심포지엄은 7월8일 많은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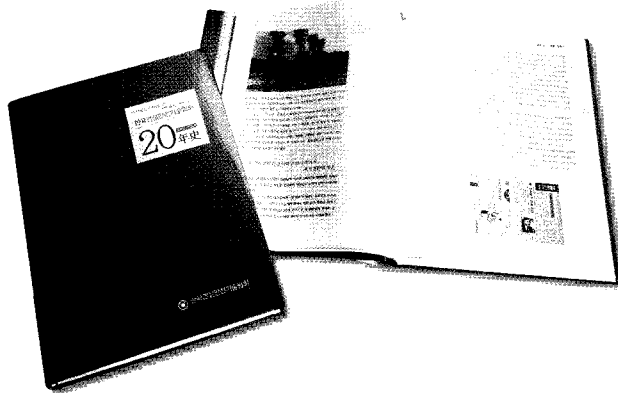
한편, 7월 5일(월)부터 4일간 코엑스 전시홀 B에서 열린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신 장비와 제품을 선보였는데, 미국, 일본, 독일 등 국내외 2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약 1만여점을 전시되었으며,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보는 체력측정 코너와 심폐소생술 코너 등이 마련되었다.

협회 20년사 발간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협회가 20년사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20년사는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일반 회사의 사사와 달리 인간존중을 기본이념으로 안전한 세상을 열어

가기 위해 매진해온 협회의 지향하는 바에 따른 있는 그대로의 시대별 변천사를 심는데 주력하였다. 총 401쪽 분량의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20년사는 발간사 및 축사를 시작으로 역대회장 및 이사회, 사진으로 보는 20년, 설립과 시대별 변천



사, 연혁 및 업무소개, 기술편, 자료로 보는 20년의 순으로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사진 자료 및 도표를 게재해 보는 재미에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박구준 부회장을 편찬위원장으로 편집위원, 편집TF팀 등

20년사 편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러분 노력의 결과로 발행된 건설안전 20년사가 대한민국 건설분야는 물론 국내 모든 협회 발전에 지향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배포문의 : 기획부 ☎ 3485-5833

협회,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천대회 가져



협회 사당에서 거행된 서울선언 실천대회

안전보건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국제헌장인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의 국내 확산을 위한 협회 임직원 실천대회가 개최되었다. 협회는 지난 6월21일 한경도 회장을 비롯해 박구준 부회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교육장에서 서울선언 실행 협회 실천대회를 개최하여 그 의의와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2008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채택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의 국내외적 확산을 위해 노·사·정 기관, 단체 및 학회 등은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날 실천대회에서는 그동안 성과로 베트남에서의 서울선언에 대한 실천 권고사항 채택, 지난 4월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 연차총회에서의 성명서 채택, 최근 동유럽 지역에서의 서울선언 기반의 실행계획 채택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향후 추진방안으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은 국내에서의 서울선언에 대한 실행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국내에서의 서울선언 실행 확산을 위

해 그동안 서울에서 국내의 산업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 인천 본부에서 서울선언 기념관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7월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를 통해 국내외 사업장의 '서울선언 실행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도 가진바 있다.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해외에서의 '서울선언'에 대한 지지 성명서가 스페인, 독일, 모리셔스 등에서 잇달아 채택되는 등 각국의 관심과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서울선언'의 취지와 실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지난 5월 25일 인천 부평구 소재 공단 회의실에서 제 3차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해외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한 국내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내 각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서울선언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설안전기술사 안전관리분야 통합교육실시

협회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협회 제2 교육장에서 건설안전기술사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경보 회장과 박구준 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전문위원이 직접 실시한 이번 교육은 한국기술사를 대행해 우리협회가 실시한 것으로 한경보 회장은 현장안전관리를 위

한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하였으며 박구준 부회장은 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제도 및 법규관련 및 건설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 건설안전기술사 안전관리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경보 회장.

이날 교육에 참석한 교육참석자들은 “수강생 모두가 건설안전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건설사의 현장소장 또는 안전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기에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육에 참석한 건설안전기술사 상호간에 상견례와 정보교환 등도 이루어지는 등 매우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소감을 밝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자주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안형준 교수(협회회원) 재직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안형준 교수(협회회원) 재직10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지난 5월13일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서 한경보 회장을 비롯해 오중근 교수와 건국대학교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형준 교수의 재직 1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스승의 날을 겸해 열렸던 이날 행사는 2001년 3월 부임한 이래 40여명의 건축구조 석·박사를 배출하고 현재 10명의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는 안형준 교수의 지도에 감사하고 기념하고자 열렸는데,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안형준 교수 건축구조연구실에서 수행한 실적과 연구생 발표와 참석자 상호간



• 축사를 하고 있는 한경보 회장

의 만찬을 겸한 자리로 진행 되었다.

이 자리에서 안형준 교수는 그간 지도과정에서의 에피소드와 회노애락을 소개하였으며 앞으로 학문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하였으며, 한경보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문분야에서의 탁월할 활동뿐만 아

니라 활발한 대외활동으로도 높은 덕을 쌓은 안형준 교수로부터 교육의 기회를 갖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은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형준 교수는 기술사 자격 5개를 보유한 국내 최다 기술사자격 보유 공학박사이기도 하다.

제90·91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일행 협회 방문



통해 학교시설 확장업무에 안전의식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되었음에 가슴 벅찬 감회를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하고 향후 전문적인 기술습득에 더욱 매진해 진정한 건설안전 전문가로 발전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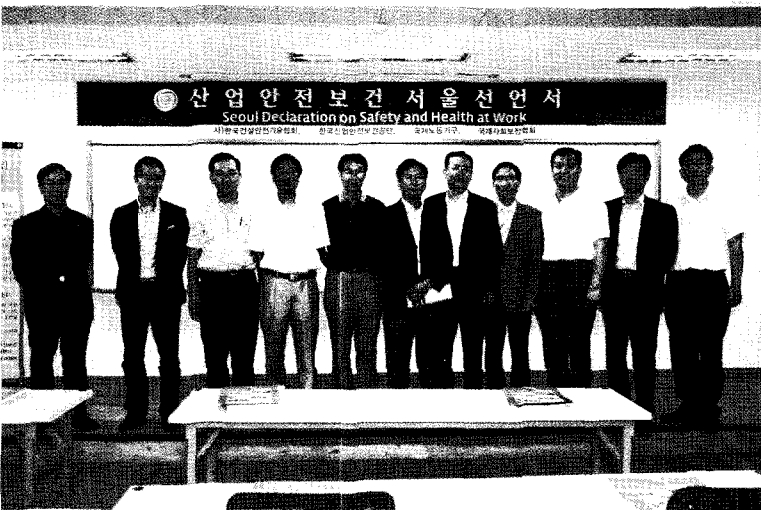
4월23일과 7월16일 각각 협회를 방문한 합격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교류를 통해 유대강화는 물론 정보교환도 추진하겠으며 협회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임직원 일동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 합격의 영예를 안은 합격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협회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날 협회를 방문한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제90회 합격자

- 전상준 (롯데건설)
- 최인봉 (군산대학교 시설과장)
- 강동식 (현대건설)
- 조태구 (동부건설)
- 김병익 (철도공사)
- 조윤희 (한국구조연구원)



• 협회를 방문해 협회연혁 및 활동상을 소개받고 향후 건설안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제90회(사진 상) 및 91회(사진 하) 합격자 일동.

제 90회 및 91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일행이 각각 4월23일과 7월16일 협회를 방문해 한경보 회장을 비롯해 박구준·유길환 부회장, 안태호 이사 등과 협회가 20년사를 발행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한 역사에 대한 설명 및 활동상을 소개 받았다. 또한, 합격자 일행은 향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협회 발전에 앞장서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90회 합격자 중 군산대학교 최인봉 시설과장은 소감을

● 제91회 합격자

- 이원기 (동부건설) / 신영현 (경기도청)
- 서호모 (준설 주식회사) / 양철규 (쌍용건설)
- 박종복 (대우 ENG) / 김달운 (현대산업개발)
- 김영백 (산업안전보건공단) / 문무일 (KCC 건설)
- 임진상 (환경관리공단) / 효종관 (삼성건설)

협회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해

우리협회 임·직원의 종합 건강검진이 지난 6월 메디모아플러스 병원에서 실시되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질병이 있을 경우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강검진은 예방의학에 기초를 두고 건강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날 건강검진에서는 시전도, 식도, 위, 소장, 흉부검사, 초음파검사를 비롯한 기초검사와 치과 진료도 시행되었다.



• 메디모아플러스 병원에서 실시된 2010년 정기 건강검진.

메디모아플러스 병원은 2004년 개설된 종합병원으로 병상수 52, 입원실 25실을 갖추고 있으며 연세외과 원장을 역임한 이엽 원장을 비롯해 5명의 전문의가 신경외과, 내과, 성형외과, 통증클리닉, 산부인과, 치과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방사선과와 종합검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진단의학센터의 임상검사는 국내 최정상급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및 서비스로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병원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KOSHA 18001 협의회 개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3월 23일(화) 우림건설(주) 본사에서 『건설업 KOSHA 18001』 인증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0년 1/4분기 『건설업 KOSHA 18001』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인증 참여 사업장의 안전부서장

및 사업부문 점검분야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건설업 KOSHA18001 인증사업의 추진방향과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기반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건설업 KOSHA 18001 인증을 획득한 건설업체의 경우 민간 재해예방전문 기관을 통한 안전점검시 안전경영시스템을 접목



• 건설업 KOSHA 18001 협의회 워크숍 토론 장면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인증 획득 발주기관은 재해율 발표 등 제도변화에 따른 발주기관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에서는 인증기간의 단축방안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과정에서의 자율적인 정착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KOSHA 18001 인증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선진안전보건관리 기법으로 2001년 시행되어 현재까지 종합건설업체와 발주기관 등 총 46개사가 인증을 획득했다.

안무영 전문위원 공항철도 예비준공검사 실시해

안무영 전문위원이 “인천국제 공항철도 시설물 토목,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요원으로 발탁되어 인천공항 ~ 서울역 구간의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7월 10일 오전 9시30분 부터 실시된 이번 예비검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요원들이 참여했으며 건축물

안전분야 전문가로 협회 안무영 전문위원이 발탁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현대, 대림, 포스코, 동부, KCC건설, 삼한기업, 삼부토건, 고려개발이 지분율대로 시공하고 있는 이 구간은 인천국제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접근 교통수요 대비 및 도로교통에 의한



• 공항철도 2단계 구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안무영 전문위원(우측 2번째 인물은 협회회원인 KCC 박규수 현장소장)

비상시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과 민간자본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했다는 큰 의미를 갖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연장 61km중 이번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2단계 20.7km 구간은 복선철도로 김포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2단계 사업으로 금년 12

월말 개통 예정으로 현재 시운전 단계에 있으며 이 구간이 완공되면 서울역에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직접 연결되어 이미 운행 중인 공항철도1단계 구간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화건설,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이 지난 5월2일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과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제3경인고속도로로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상수 인천시장, 김윤식 시흥시장과 한화건설 이근포 대표이사 등 출자사 대표이사 및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개통을 축하했다.

제3경인 고속도로는 한화건설이 주간사인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한라산업개발, 대림건설, 경기도시공사)이 총 7,379억원(민간 4,403억원, 경기도 2,976억원)을 투자해 총 14.27km, 폭 23.4~30.6m, 왕복 4~6차로로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까지 조성된 도로이다. 이를 통해 인천 송도에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수도권 서남부와 최단거리로



• 기념사를 하고 있는 한화건설 이근포 사장

이여진다. 또한 송도해안도로를 따라 인천대교와 바로 연결돼 인천국제공항으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주간사로 참여한 한화건설 이근포 대표이사는 “제3경인고속도로를 개통함으로써 4년여에 걸친 7,300억 원 규모의 대형 SOC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사업 관리 역량을 한층 높

이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철도/터널/교량 등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과 시흥의 동서축을 잇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5월 3일 낮 12시에 개통한다. 제 3경인고속도로는 총 길이 14.27km, 왕복 4~6차선 규모로, 인천 송도에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며 곧바로 시흥시 논곡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이날 개통은 당초 2010년 8월로 계획된 개통예정일보다 3개월 앞당긴 것이다.

삼성건설 안전활동 경진대회 가져



* 삼성건설 안전활동 경진대회에 외부초빙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심사평을 하고 있는 한경보 회장.

삼성건설은 지난 7월 8일 건설회관에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삼성건설 안전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경보 회장이 외부초빙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인섭 전무와 송은수 상무를 비롯해 주요 현장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를 가진 각 현장은 그간 내부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현장으로 선정된 곳으로, 각 현장 관계자들은 그간 안전활동에 쏟은 아이디어와 실적 등을 전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삼성건설 안전활동 경진대회는 각 현장의 우수 사례 전파 효과와 안전의식 고취 등 그 효과를 크게 인정받고 있어 국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사이며 매년 행사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경보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안전활동을 위해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삼성건설의 방침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삼성건설의 안전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고

하였으며, 병상에 있는 김유택 상무의 쾌유를 빌었다(삼성건설 안전환경팀 김유택 상무는 이후 별세함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최우수상은 팽택LNG22, 23 현장이 공덕 제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공사 현장이 대상상, 우수상은 군포산본 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건설공구 현장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군장대교 건설공사현장과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공사현장, Shuwei hat S2 Project 현장이 차지했다.

이상열 고문 별세

협회 제3대 회장을 역임한 이상열 고문이 지난 9월 27일 별세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신 고인은 협회 전신인 건설안전전문분회 초대 이사회의 이사로 재임하였으며 협회 발족 후 1·2대 부회장으로, 이후에는 상근 고문으로 활동하시며 협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분이셨습니다.

제3회 회장 재임시 이룩한 대표적 업적으로



대구 지하철 1호선 가스폭발사고의 안전진단을 비롯해 1997년 서울 동소문동 한진아파트 옹벽 붕괴사고와 영동대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협회 업무영역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전 회원과 임·직원 일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설인들 모두는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EWS & PLUS